

# 산들

| 퍼낸이,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중보기도 5

매일기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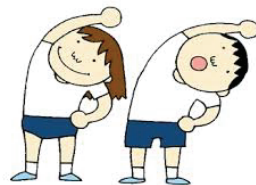
가족소식 8

발에 감추인 보화 10

예가공지 12

## “준비운동”

남산자락으로 이사 와서 산 7~8년 동안 남산 시각장애인 산책로는 내가 곧잘 애용하는 산책로가 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산책할 때 발목에 통증이 와서 불편했다. 그래서 한동안 쉬다가 다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는데 남산 시각장애인 산책로 9킬로미터를 왕복하면 통증이 조금씩 온다. 진찰해보니 발목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근육의 힘을 키우려면 조금씩이라도 걸어야 한다고 한다. 걸을 때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발목 보호대 등의 보조 도구를 이용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보았다. 목사님과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 내가 걷기는 좋아하면서 제대로 된 준비운동을 거의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비운동 없이 운동을 한 것이 무리가 오게 되고 그것이 누적되어서 이제 부작용으로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주기에 코이노니아벨리를 살면서 교우들을 좋아하고 예쁘게 보고 감사하는 표현을 더 많이 하며 살고 있는 것이 참 좋다. 교우의 새롭게 알게 된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워킹뷰티벨리로 좋은 점, 예쁜 점을 일대일 만남을 할 때 미리 준비해서 나누고, 정기 모임 때 불평하고 싶다가도 천사의 허바위를 떠올리며 입을 다무는 것을 실천하니 불평할 일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서 좋았다. 올해 더 예뻐 보이고 좋아

하는 교우들이 늘어서 행복하다.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 그냥 좋고 그냥 예쁘다.

그런데 교우 모두가 그냥 예쁘고 그냥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속으로 불평하고 판단하며 교우들을 예쁘게 보지 않는 나를 보는 것이 괴롭다. 그러는 내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깨닫는다.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헛수고이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좋아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할 때 떠오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이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롭니다.”

교우들을 예쁘게 보고 좋아하는 것은 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며 믿고 사랑하라는 말씀으로만 사는 새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우들을 사귀며 사랑하는 일을 하기 전에는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준비운동을 하게 된 것처럼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기도는 준비운동처럼 느껴진다.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교우들을 예쁘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그 기도 위에서 섬기는 기쁨으로 3주기를 살겠다.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11:25, 26)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과 생명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신 것은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라고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온 것이 부활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경험해야 되는 부활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도 아닙니다. 죽은 지 오래된 뼈에 살이 붙어 산 존재가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말 안에는 죽고 다시 산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고 무엇이 다시 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의 몸은 D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체계이고 언어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몸은 DNA가 주는 정보대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완성한 것이 육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땅에 속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속한 언어의 완결판입니다. 인간의 몸은 이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언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

늘에 속한 언어는 다양한 형태로 번역되었는데 유교경전에는 그것을 ‘천명’이라는 형태로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성품 안에 하늘의 명이 들어있고 그 성품을 따라가는 것을 인간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천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노자는 하늘의 언어를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기독교 경전은 이것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명이든 도든 말씀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하늘의 언어도 마찬가지로 몸을 이룹니다. 하늘의 명령이 인간의 성품을 만들고 성품을 따라 살면 하늘의 명이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몸에 심겨져 자라서 인간의 몸을 형성하면 바깥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육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떨어져서 새로운 몸을 형성하는 것은 마치 모판에 범씨를 심어서 모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모판은 우리의 육체와 같은 것이고 범씨는 하나님 말씀과 같은 것인데 거기서 자라는 모는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모판 위에 범씨가 떨어지고 모를 형성할 때 그 모가 부활의 몸입니다. 당연히 그 모는 모판이나 땅으로부터 뽑히면 시들어버리고 죽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몸도 흙으로 조성된 육체를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보는 부활과 관련된 인간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태어납니다. 이 땅에 속한 언어가 형상화 되고 구체화되어서 우리의 육체를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언어가 이 육체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체 속에서 하늘의 언어를 육성하고 키워서 나의 몸을 다시 만듭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몸이 부활의 몸이요 생명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이 맨 처음 태어난 이 땅의 몸을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몸이 자기의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땅의 언어가 나의 육체를 통해서 관철되지 않도록 하고, 도리어 이 육체가 하늘의 언어를 관철시키고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일,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시편	1 : 1 - 6
고린도후서	13 : 1 - 13
요한복음서	6 : 47 - 69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몸을 이루어서 첫 번째 받은 예수님의 육체를 완전히 덮어서 예수님은 하늘의 몸으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는 이 땅의 육체를 하늘의 몸으로 덮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로봇 만화 중에 인간이 로봇 안에 들어가는 만화영화があります. 인간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대로 로봇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마치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받은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하늘의 몸을 덧입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몸이 하늘의 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몸에 하늘의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썩어 없어진 다음에 이 마른 뼈에 흠어져 있던 내 몸의 조성 성분들이 다시 모여서 미이라가 다시 탄생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늘의 몸이 이 땅의 몸 위에 덧입혀져서 이 땅의 몸이 하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일 그것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몸을 가지셨고 예수님 안에 약동하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을 나타낸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의 티끌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속한 육체의 몸은 결국은 티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이 육체는 흙의 티끌일 뿐이며 이것은 덧없이 먼지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늘의 몸으로 덧입기를 원하고 하늘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땅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 부활의 몸이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마찬가지로 나도 이 땅에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언어가 완결된 이 육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육체의 기능은 영원한 몸을 담아내는 일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내 몸에 심어서 키워 하늘의 몸이 내 몸을 완전히 덮어버릴 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늙어지고 노쇠해지고 주름살이 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어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더 멋있어지고 더 밝아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의 몸을 덧입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나의 높아가는 몸통이 통해서 드러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부활의 몸을 이루고 하늘의 생명이 나에게 약동하고 넘쳐서 이 땅의 몸을 뒤덮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그 때 우리는 이것이 부활의 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고후13:5)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실격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늘 스스로 돌아보아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단순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모르면 실격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느낌이 없으면 실격자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내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고 '야, 놀랍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가 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합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 부활의 몸이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마찬가지로 나도 이 땅에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언어가 완결된 이 육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육체의 기능은 영원한 몸을 담아내는 일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격자요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몸뚱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부활의 생명과 성찬은 일치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서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의 살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찬과 부활은 뿔레야 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사는 삶입니다.

이 땅에 속한 육체는 밥을 먹고 삽니다. 밥은 이 땅에 속한 육체가 먹고 사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몸, 생명의 몸, 부활의 몸이 먹어야 되는 양식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채워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특징입니다. 그 살과 피는 나를 위한 살과 피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살과 피입니다. 나의 살과 피의 특징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나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효능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참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피라고 믿고 받으면 분명히 예수님의 살과 피는 효능대로 여러분의 삶을 나를 위한 삶에서 당신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성찬을 받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이 하는 일을 따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나의 살과 피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이 성찬을 진심으로 받는다면 나도 내 살을 떼어서 당신을 먹이고 내 피를 내어서 당신을 마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도 예수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데도 쓸모 없는 것을 가지고 살리는 데에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썩어 티끌로 돌아갈 우리 몸뚱이를 사용해서 부활의 몸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보람있는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 땅의 몸뚱이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몸뚱이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 땅의 몸뚱이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 위해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야말로 허전한 인생입니다.

60년대 유명한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는 나이가 들어서 아프리카 난민과 기아를 위한 활동에 자기의 남은 여생을 다 매진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차피 자기 몸뚱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몸뚱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욕심이 사나워져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이를 잘못 먹는 방식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뚱이는 하늘의 몸을 덧입은 몸뚱이인지 하늘의 몸은 없고 완전히 별거벗은 이 땅에 속한 몸뚱이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별거벗은 땅에 속한 몸뚱이를 가지고 있다면 창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늘의 몸을 덧입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해서 하늘의 뜻으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하늘의 몸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여러분의 몸뚱이를 제어하고 여러분의 몸뚱이를 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미리내 황호영: 옛 화목가족에게 감사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미리내님과 주 3회 코이노니아벨리 문자사귀를 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일대일 만남 짝에게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반가운님에게 식사대접을 하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소망님에게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광야님에게 영양제를 선물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성실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바다님에게 수제 음료를 대접하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가족모임 장소준비자로 애쓴 좋은님에게 감사선물을 하겠습니다.

광야 김규동: 성실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성실님과 믿음의 사귀으로 즐거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진주님이 2주기 장소준비자로 애쓴 것에 대해 감사선물을 하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진주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가족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모란님과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섬김 강수덕: 뿌리님과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가족모임에 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뿌리 조민경: 진주님과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란 신연경: 진주님에게 영화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음 김진승: 한가온님에게 필요한 선물을 하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푸른님에게 김치를 담가 선물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큰열매님의 방문 준비를 돕겠습니다.

불꽃 김강진: 푸른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가온 양세현: 큰열매님의 방문 준비를 돕겠습니다.

시원 박주현: 한가온님에게 필요한 선물을 하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희은님에게 루이보스티를 선물하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유랑님을 생각하고 유랑님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하겠습니다.

희은 박용제: 등대님에게 성구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겠습니다.

맑은 최영란: 늘빛님에게 브로치와 밑반찬을 선물하고, 초청한 기쁨과 감사를 준비하여 만나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희은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해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새롬 류정희: 도시락을 준비해서 아모님과 봄나들이 사귀를 하겠습니다.

아모 박주은: 새롬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달빛 김주영: 마리아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모퉁이돌 이영교: 보라님에게 감사문자를 보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 석재호: 마리아님과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감사의 말씀과 선물을 준비해서 온유님과 만나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선물을 준비하여 맑은님과 만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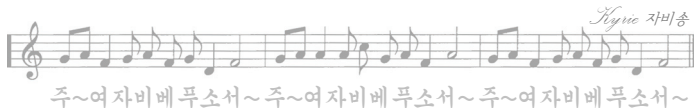
샘물 박행수: 독립군님과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늘빛님을 한의원에 모셔 드리겠습니다.

온유 유형미: 나무님과 감사의 삶을 나누는 만남을 갖겠습니다.



# 부활절 여섯째 주



주~여자비베무소서~주~여자비베무소서~주~여자비베무소서~



## 아침 기도

### 시편찬양

시편 98편

소리내어 천천히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 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못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 치듯 큰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못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 첫 기도

주님,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생명은, 사랑하는 삶을 소원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생명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내게 사랑하는 기쁨을 주소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으로 인해, 사랑하지 못하여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이 육체를 새롭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덧입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루 종일 사랑의 수고를 다한 뒤에, 한 시편기자가 드린 기도처럼, 주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주님의 찬양 노래가 나에게 있을 것이니, 나는 다만 살아 계시는 내 주님께 기도드릴 뿐입니다. 아멘.

###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 독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4/5-6/1-2  
 3-4/1-2/3-4  
 소리내어

###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



죽과 새 고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 마침 기도

주님, 지난 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 밤 기도

### 시편찬양

시편 98편

소리내어 천천히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 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못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합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 치듯 큰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못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 첫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 드림가족

소망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반가운(양현웅)님과 첫 일대일 만남을 했다, 한신대학원 근처에서 반가운님과 20~30분 정도의 짧은 만남을 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쁘고 감사했다, 믿음의 삶을 나누는 사귄 시간은 양보다는 그 시간을 집중하는 방법과 내용에 있다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소망님을 좋아해서 선물한 화장품이 잘 맞았으면 좋겠다, 미리내님에게 성구로 감사를 전하는 문자를 하고 호두정과와 아몬드정과를 만들어서 선물했다, 일대일 만남을 하면서 위칭뷰티텔리로 좋아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많이 해서 좋았다, 바쁜 일정으로 피곤한 에스더님과 함께 하려고 티몬에서 맛사지 티켓 커플권을 구매했다, 은석님에게 아침기도 후 성경말씀으로 감사문자를 하고 일대일 만남을 준비했다, 평소에 잘 챙겨주셔서 든든한 은석님이 자주 신는 덧벼선과 이모티콘을 선물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맑은, 사랑, 새롬, 성실님에게 감사문자를 하겠다, 반가운님과 식사를 하겠다, 초등부 교사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 101반 장소준비를 기쁘게

하겠다, 식탁가족의 간식을 준비 하겠다”고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소식가족

친교실에서 혜음(이규진)님을 초청하여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등대님에게 교회의 소식과 가족의 소식을 카톡으로 전하고 감사인사를 했다, 활기찬 등대님의 목소리가 생각났고 보고 싶어졌다, 마르다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감기로 기침하는 마르다님에게 비타민 음료를 선물했다, 마르다님이 간편하게 마시고 여러 사람들과 나눠 먹어 좋았다고 하니 기뻐다, 교역자 섬김 활동 격려 문자를 했다, 마르다님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준비했다, 밝은 얼굴로 사람을 좋아하는 마르다님을 따라 하겠다, 이번 주도 소식가족이 있어 행복한 한 주였다, 등대님을 좋아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한 주일에 세 번 이상 인사를 하기로 하고 실천했다, 등대님이 답장도 잘 해 주고 서로 안부를 나누니 등대님이 가깝게 느껴졌다. 앞으로도 등대님과 매주 한 번 이상 개인 카톡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엔젤(김연우)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하겠다,

테미스(정규현)에게 선물 하겠다”고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화음가족

신나님 집에서 진동욱 목사님을 초청하여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화음님이 기침하는 것을 보고 기침 증상에 도움이 되는 생강청을 사서 선물했다, 앞으로 기침에 좋은 다른 음식 종류도 더 알아보겠다, 신나님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프리마켓에서 천연세제인 베이킹소다를 구입하여 선물하였고, 평소에 즐겨 쓰는 것이라며 반가워하는 신나님에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전주에서 열리는 들국화 콘서트 표를 구하고 푸른님과 함께 콘서트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돌아오는 차 시간에 쫓겨 미처 듣지 못한 노래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푸른님에게 전달했다, 한가운님에게 직접 담긴 열무김치와 겉절이, 그리고 인터넷으로 산지에서 주문한 김을 선물하면서, 무엇이든 맛있게 잘 먹는 한가운님에게 감사했다, 유유님의 박사 논문 통과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유유님에게 보내고, 멀리서도 늘 한 가족으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다, 화음님에게 필요하지만 근처

에서 쉽게 구하지 못해 쇼핑을 미루고 있는 물품을 사러 다니면서, 스스로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할 때보다 더욱 즐겁게 쇼핑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다솜(이지원)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다, 모란님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 카라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다, 맑은님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 치타(안현수)와 편의점에 다녀오겠다, 마르다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다”고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사랑가족

진주님 집에서 아람(류재현)님을 초청하여 10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아람님이 고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과를 넣어 조리 돼지고기스테이크를 만들 계획을 세웠고,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미니 주먹밥을 만들면서 행복했다, 고래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냈다, 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을 고래님에게 스토리로 살아가기 위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사랑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알려주고 싶었다, 고래님의 장점과 이미지를 나누며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행지에서 가족선물을 고르며 즐거웠다, 모란님을 좋아해서 식사와 음료를 마시며 깊은 사귀를 가졌다, 봄 밤에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내가 교회에서 산 삶을 이야기하고 모란님을 격려하는 시간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아람(류재현)에게 선물을 하겠다, 가평에 간식을 준비해서 가겠다, 새롬님에게 선물을 하겠다, 식탁가족 간식을 준비하겠다, 홈스테이 식탁가족모임에 간식을 준비하겠다, 교우들에게 선물을 하겠다, 즐거운님에게 감사문자를 하겠다”고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맑은가족

독립군님 집에서 명화(이정우)님을 초청하여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샘물님과 남산 유스호스텔에서 일대일 만남으로 함께 산책하고, 장조림을 선물하며 좋은 것을 많이 표현해서 행복했다, 맑은님이 숙소에서 와서 만나고 아침 일찍 한적한 남산을 함께 산책하니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며 참 좋았다, 나무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밭에서 뚫나물, 머위를 캐서 물김치와 함께 선물했다, 준비하면서 나무님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 나무님의 예쁜 점, 좋은 점만 보며 이야기하니 마음이 흐릿하고 감사했다, 늘빛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늘빛님을 위한 기도말씀을 찾아 문자를 보냈다, 샘물님과 함께 간식을 드실 수 있도록 먹거리를 사기 위해 장을 봤다, 늘빛님, 샘물님과 문자를 주고 받았다, 맑은가족의 든든한 기동인 샘물님, 늘빛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옛 화목가족을 초청해서 대접하겠다, 신나님에게 감사선물을 하겠다, 빌립님, 바다님을 대접하겠다, 도원이에게 생일선물을 하겠다”고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성실가족

좋은님 집에서 자유(김선우)님을 초청하여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찬미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며 즐거운 사귀를 갖기로 하였다, 맛있는 식사로 찬미님을 섬기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공원을 산책하며 믿음으로 함께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다, 2주 기에는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실력을 키우고,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찬

미님을 좋아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오렌지를 준비했다, 좋은님을 좋아해서 삼계탕을 대접했다, 서로 믿음의 대화를 하면서 사귀를 갖는 것 같이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느꼈다, 바다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 4월 마지막 주에 산책과 식사를 대접할 계획을 세웠다, 바다님과 함께 한 산책이 너무 좋아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선물은 양말을 준비했고, 식사는 바다님이 대접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샘물, 늘빛님댁을 방문할 때 간식을 준비하겠다, 홈스테이 식탁가족에게 감사문자를 하겠다”고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포도가족

마리아님 집에서 다솜(이지원)님을 초청하여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아모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일대일 만남을 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다, 새롬님을 좋아해서 아침기도 후 말씀과 함께 감사문자를 보내고 식사를 대접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사랑하는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좋았다, 마리아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도시락 반찬을 선물하고

싶어서 우영잡채와 깻잎나물을 선물했다, 음식은 만드는 동안 선물할 사람에 대해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고, 재미있다, 해님에게 감사문자를 하고 멀티 충전기를 선물했다, 이번 주에 호습기도를 잘 하지 않아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에는 믿음의 기본이 되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 모퉁이돌님에게 안부 카톡을 하고 반찬선물을 하며 좋아함을 표현하기로 계획했다, 갈비뼈를 다친 모퉁이돌님에게 국, 밥, 반찬을 싸서 직장으로 가져다 드렸다, 갑자기 찾아갔는데 모퉁이돌님이 반겨주어서 고맙웠다, 환하게 웃는 모퉁이돌님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드림님에게 감사문자를 하고 간식을 선물하겠다, 카라님에게 재즈음악CD를 선물하겠다, 홈스테이 가족 카톡방을 만들어 사귀겠다, 독립군님에게 안부인사를 하겠다, 식탁가족 간식을 준비하겠다”고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주간일지

성실가족 성실 신정아

## 대가족 만남 주간

사랑가족과 대가족으로 만난다. 대가족 카톡방에서 말씀으로 인사와 기대를 나누며 모란, 고래, 섬김님 등 반가운 얼굴이 많은 사랑가족과 만날 설렘에 절로 신이 난다.

마침 공휴일이라 버르고 버르던 찬미님의 레시피로 코다리찜을 할 계획이다. 당일 아침 6시부터 연습을 해 본 결과, 덜 말린 코다리가 아쉬워 채반에 잘 펴서 널고는 드라 이어기로 어느 정도 말리고, 또 자연바람에 6시간을 말려, 기름에 구운 다음 찬미님의 조언에 따라 전자레인지에 돌려가며 정성을 다해 코다리찜을 완성한다. 조금 이른 시간에 코다리찜과 충실히 준비한 워크북을 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이 참으로 경쾌하다.

대가족 주일모임을 갖자는 사랑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시간에 워킹뷰티밸리와 숨겨진보석계곡을 하자는 의견을 내고 간식을 자원하며 대가족을 대접하며 즐겁다. 모란, 고래님과과의 일대일 만남도 형식에 맞게 준비하고 그 내용을 색색에 인쇄하여 예쁘게 접어 선물로 전하고 믿음의 사귄을 가진 한 주간이 참 재미있다.

## 교역자 섬김 주간

100회 성실가족모임을 기념하는 이벤트로 하트풍선 2개, 손 글씨로 쓴 '100', '성실', '가족' 그리고 우리 가족이 선호하지 않은 케이크를 대신할 맛있는 빵과 초를 서프라이즈로 준비한다. 하지만 협의하지 않

은 이벤트라 우리가족은 썩 반기지 않는다. 즉흥적으로 육체가 느끼는 대로 기분 나빠하며 차를 빼야 된다는 좋은 핑계를 대고서 밖으로 나와 호흡을 하며 걷는다. 모임 10분 전에 들어가 보니, 내가 꺼냈던 한지와 풍선이 벽을 장식하고 있다. 나는 웃기는 했지만, 그리 흥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한 가족모임을 잘 진행해야겠다는 생각 뿐이다.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는가!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가족들이 나를 거부한다는 생각에 빠져 갑자기 슬프다. 밤 기도를 하면서 지금 내가 느끼는 안 좋은 정서를 떨쳐내고 코이노니아 밸리를 잘 살아야겠다고 정리하고 잠든다. 새 날이다. 가벼워진 정서로 살다가 “인도자가 예쁘면 그런 이벤트는 귀엽게 받아들이지”라는 말 한 마디에 또 괴롭다. 결국 내 문제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자책에 빠져 잠도 오지 않는다. 그럴수록 자꾸만 떠오르는 나쁜 생각들을 던져버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성찬준비로 모인 가족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몸을 열심히 움직인다. 일대일 만남을 하면서 내 믿음의 상태를 고백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그 가족의 예쁘고 좋은 점을 좋은 말로 표현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한다.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었지만 요즘의 나의 상황을 상담 받고 싶어 심각한 얼굴로 제안서를 들고 목사님 방을 두드린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



것들을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고 한 마디로 정의하셨다, 너무 간단하게.

## 초청과 기쁨 주간

그런가 보다. 별 것 아닌 것을 머리로 안 좋은데 복잡하게 꼬아서 괴로워하고 있나 보다. 점점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생긴다. 자유님을 초청하여 모든 가족이 호스트가 되어 귀하게 대접하는 것을 목표로 가족모임을 준비한다. 찬미님의 제안대로 빌립님은 달래장과 한 판 가득 두부부침을, 바다님은 풍성한 과일과 과자를, 장소준비자인 좋은님은 밥과 된장국, 육회와 나물반찬을, 찬미님은 싱싱한 샐러드를, 나는 버섯불고기를, 광야님은 설거지를 하며 기쁨을 누렸다. 애프터 시간에는 믿음으로 자유님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질문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자유님을 포함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뻐 보인다. 다음날 이 기쁨을 말씀과 함께 카톡방에 남겼다. 참 기분 좋다.

## 감사와 희망 주간

오직 가족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실행서를 작성할 수 있어 우선, 밝은 눈을,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슴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 드린다. 3주기 희망으로 가족들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 자녀양육모임 아웃도어

새롬 류정희

자녀양육모임의 회원들이 답사를 다녀와 정성껏 준비한 아웃도어를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 소개합니다.

아웃도어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는데, 민속촌은 처음 간다. 먼저 인터넷으로 한국 민속촌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보고 대략의 안을 잡았다. 단체 20명으로 2주 전에 예약을 하였다. 답사하기 전에 미리 연락하니 담당자가 입구에서 맞아주고 입장료도 안 내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답사한 날은 비가 오고 날씨도 많이 추웠지만 함께 간 한가온님과 달빛님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밝은 얼굴로 기쁘게 답사를 같이 해서 너무나 고마웠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아이를 같이 키워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속관을 돌아보며 퀴즈 문제를 위해 사진을 찍었다. 장터에서의 관건은 점심식사 자리를 잡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자마자 바로 해결이 되었다. 온돌방 자리를 예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답사를 꼭 해야 하나 보더라

고 생각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먹을 만한 것들을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나오는 길에 그네터에 투호놀이, 줄넘기, 윷놀이 등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을 보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았다. 셋이 동시에 ‘그럼 여기부터 보면 어떨까’ 해서 일정을 오전 오후를 바꾸어 정하게 되었다. 이것 또한 답사의 백미가 아닐까? 그래서 한가한 시간에 그네 타려고 줄을 서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게 되었다. 답사 후 일정을 수정하고,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드디어 아웃도어 가는 날 아침 7시 50분 집합이었다. 아무도 늦지 않게 도착해서 8시에 바로 출발했다. 차도 전혀 막히지 않아서 민속촌 맨 앞에 주차를 하고 단체 매표소가 열지 않아서 기다리기까지 했다. 미세먼지가 예보되었지만 숲같은 곳이라 공기도

좋았고, 일찍 가서 여유 있게 그네터에서 놀았다. 민속관에서는 제일 막내까지도 열심히 보고, 퀴즈를 푸는데 열심이었다. 민속관을 나와서는 농악공연, 마상무예를 보았는데 공연에 쏙 빨려 들어 집중해서 보았다. 점심시간에 예약해 놓은 큰 방으로 갔는데, 우리밖에 없었다. 여유 있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아이들은 앞마당에 나가서 놀았다. 간식을 조별로 지급해서 조장 권한으로 조에 속한 아이들과 간식을 먹고 오게 했다. 아이들도 신나고 어른들도 편안하게 쉬었다. 간식으로 엿을 먹었는데 무척 맛있었고 연탄불에 쥐포랑 존득이도 구워 먹었다. 먹고 난 후 민속촌 사람들인 거지, 기생, 술주정뱅이 사또, 이방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하며 대가집, 초가집 등을 속속들이 구경하고 입구로 나왔다. 나오는 길에 누에에서 비단실을 뽑는 것도 보고 설명도 들었다. 구석구석 알차고 스토리가 있는 민속촌에 모두 반했다. 모든 연령대를 만족시키는 별 다섯 개 아웃도어였다.

처음 아웃도어를 시작할 때는 즐길 줄 모르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제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함께 즐기고, 동생을 돌보고 함께 어울리는 장이 되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 좋다







## 예가 공지

1. 지금은 부활절기이며, 오늘은 반가운 주일입니다. 부활절기 동안 '사랑하라'하신 말씀 안에서, 기도와 형제를 좋아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립시다.

2. 오늘 예배 후 사랑의 식탁 전에 노래배우기가 있습니다.

3. 목요기도회는 목요일 밤 9시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생활공동체 협의에 참여하는 교우들은 필히 참여 바랍니다.

4. 101반 37기는 현재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예배실에서 진행 중입니다. 101반 강의는 집회 후 자료실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5. 5월 20일(금)-21일(토)에는 주일식탁 가족 홈스테이가 있습니다. 오늘 역할, 프로그램, 예산 및 회비 등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드림, 에스더님입니다. 예배위원은 예배의 뜻을 새기며 기도와 형제를 좋아하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은 드림가족이 대접합니다. 5월 봉헌위원은 바다님입니다.

### 날짜 성경읽기

월	이사야서 13장 ~ 이사야서 19장
화	이사야서 20장 ~ 이사야서 26장
수	이사야서 27장 ~ 이사야서 30장
목	이사야서 31장 ~ 이사야서 37장
금	이사야서 38장 ~ 이사야서 42장
토	이사야서 43장 ~ 이사야서 47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업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준비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